

조선시대 直領과 관련있는 중국의 袍制

- 예살과 직신을 중심으로 -

이 주 영 · 권 영 숙*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강사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Chinese Po corresponding to Jikryung of Chosun Era

- Focusing on Yesal and Jikshin -

Joo-Young Lee · Young-Suk Kwon*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names of Chinese Po corresponding to Korean Jikryung are Yesal and Jikshin.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of the shapes and usage of Yesal and Jikshin and then make a comparative review between the twos and Jikryung having side Moo. Results of the study are described as follows:

1. The Chinese costume, Yesal is translated literally into Korean, Euisal or Euisal Jikryung and called Euisal Diknyung or Uisakot in Korean while Jikshin is translated into Korean, Jikryung and called Diknyung.

2. Yesal is a new type of clothing as created during the Ming period. The costume is the remnant type of Yosunoja and Byunsunoja in the periods of Sung and Yuan. Types of Yesal are classified into two, or one whose rear part's upper and lower areas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whose front part's upper and lower areas are not, the other in which those upper and lower areas are disconnected both in front and rear parts.

3. Types of Jikshin are classified into two, one having Pa and the other having not. The latter is re-classified into two, one whose sleeve is large and wide, the whole length of which is long and which was usually worn by Sain, and the other whose sleeve is small and narrow, the whole length of which is short and which was by the grass root.

4. Yesal and Jikryung both having Pa have the almost same shapes except their front parts. Baerae of the former is more curved than that of the latter. Also the both were used as official uniforms worn by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from higher to lower levels.

5. Jikshin and Jikryung both having Pa have the same shapes. Baerae of the former is more curved than that of the latter. The both were used as official uniforms worn by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under a King and as casual costumes by Sadaeboo. In terms of color, Jikshin and Jikryung both employed red, blue and green. Especially the red color was favorably used both in China and Chosun at that time.

Key Words : Jikryung(직령), Yesal(예살), Euisal(의살), Euisal Jikryung(의살직령), Jikshin(직신), Moo[Pa](무[파])

I. 序 論

직령은 곧은 깃을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독립된 하나의 포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곧은 깃과 관련하여 《釋名》에 “直領은 領이 비스듬히 곧게 내려가 아래에서 교차된다. 또한 남성복의 袍의 방법과 같다. 交領은 그 형태에 따른 이름이다”¹⁾고 되어 있어 직령은 깃이 곧으면서 양 옷자락이 교차되는 직령교입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령이 포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깃양식이 직령교입이면서 다른 직령교입식 포제들과 구별되는 형태상의 특징이 있어야만 한다.

직령의 형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蓋永編》(1805~1806)과 《朝鮮常識》(1948)의 기록에 근거하여²⁾ 직령을 관복인 단령과 깃양식만 다르고 다른 부위의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러한 형태의 직령을 특히 관복형직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현존 유물 중에는 깃양식이 직령교입이면서 腋下에 세 폭의 천을 사용하여 두 폭은 겨드랑이 안에서 주름으로 처리하고 한 폭은 뒷길 안쪽에 고정된 형태도 있고,³⁾ 또 아래자락이 두루막힌 형태도 있으므로⁴⁾ 직령의 유형은 옆선에 달린 자락의 구성양식에 따라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단령과 무의 구성양식이 같은 직령과 관련하여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의복이 중국에서도 출토되고 있고, 문헌에도 중국 의복인 예살과 직신이 각각 이삭덕녕과 덕녕으로 언해되고 의살직령과 직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직령과 예살, 직신과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살과 직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우리나라의 직령과 관련지

은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명칭면에서 우리나라의 직령과 중국의 예살, 직신과의 관련성을 고찰한 다음 예살과 직신의 형제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직령과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시기는 조선전기 즉, 조선 건국초(1392)부터 임진왜란(1592) 이전까지로 제한하는데, 이 시기는 중국의 경우 明代(1368~1644)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직령의 착용용도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이주영·권영숙의 선행연구⁵⁾를 참고하고자 한다.

II. 직령 관련 포제

1. 예살(曳撒)

曳撒은 '曳'字와 '襖'字, '襖'字가 同字이므로 襖撒, 襖撒이라고도 한다⁶⁾.

예살이라는 의복명은 우리나라 문헌상 《老乞大》(1346년 추정)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春問好靑羅曳撒⁷⁾”이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老乞大·朴通事諺解》(1506~1517 추정)에는 “春問好靑羅衣撒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曳撒이 후대의 언해본에 衣撒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曳(yè)자와 衣(yī, yì)자의 중국식 발음이 비슷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⁹⁾.

한편, 의살은 《老乞大·朴通事諺解》와 《譯語類解》(1690)에 각각 이삭덕녕¹⁰⁾과 이삭옷¹¹⁾으로 언해되어 있다. 의살이 이삭덕녕으로 언해된 것은 언해자가 중국의 예살이 우리나라의 직령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단순히 “이삭”이라고 언해하지 않고 “덕녕”을 덧붙여 언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 이삭덕녕을 한자로 표기하면 衣撒直領이 될 것인데, 의살직령이라는 표기는 《선조수정실록》에서 확인된다. 즉, 선조 7년(1574)에 질정관 조헌은 중국 경사(京師)에서 돌아와 중국문물에 대해 보고하면서 중국 황제를 모시는 환관이 입은 옷을 의살직령이라고 칭하고 그 정제되고 의정한 모양을 본받을 만하다고 하였다¹²⁾.

따라서 중국의 의복인 曳撒이 우리나라에서는 衣撒 혹은 衣撒直領으로 표기되고 이삭덕녕, 이삭옷 등으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의살직령 즉 예살의 형태에 대하여 조헌과 유형원은 앞은 첩릭과 같고 뒤는 직령과 같으며 좌우 양편에 襞積이 있다고 하였는데,¹³⁾ 그 형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살의 형태는 중국 문헌상 《明宮史》, 《酌中志》, 《觚不觚錄》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明宮史》, 《酌中志》에 설명된 袂襖과 《觚不觚錄》에 설명된 袂襖은 형태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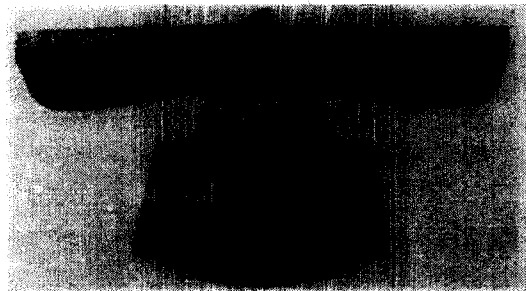
먼저 《明宮史》, 《酌中志》에 “袂襖의 형제는 뒷길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고 양 옆에 襞가 달려 있다. 앞길은 두 조각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말 이빨 모양의 주름이 있으며 양 옆에 耳가 달려 솟아 올라 있다”¹⁴⁾고 되어 있다.

즉 袂襖은 衣身 앞·뒤의 형제가 서로 다른 양식의 의복으로서 뒷길은 上下連結式으로 되어 있으나 앞길은 上下分離式으로 되어 있다. 앞길의 허리 아래에는 주름이 잡혀 있는데 주름은 앞길 치마부분의 양쪽에만 있고 가운데는 없다. 또 허리선상에서 양 옆으로 자락이 달려 있는데 뒷길의 옆자락은 ‘襞’라고 되어 있고 앞길의 옆자락은 ‘耳’라고 되어 있다. 襞는 腋下의 幅에 주름[襞積]이 있는 것¹⁵⁾을 의미하는 것이고 耳는 腋下에 붙이는 것¹⁶⁾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襞와 耳는 겨드랑이 아래의 옆선에 달려있는 사각형의 무¹⁷⁾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圖 1]은 明나라 憲宗(1465~1487)을 모시고 있는 侍者의 모습으로 예살을 입고 있다. [圖 2]는 北平南苑葦子坑에서 출토된 正德 10년(1515)의 예살의 모습으로 [圖 1]과 비교해 볼 때 단지 소매가 넓을 뿐이다.



<圖 1> 예살을 입고 있는 侍者
(中國古代服飾研究, p.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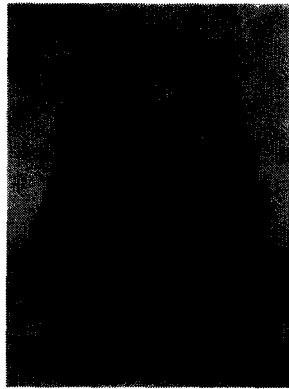
<圖 2> 예살
(服飾篇下, p.349)

이러한 형태의 예살은 內臣의 官服과 文武群臣의 朝服으로 착용되었는데,¹⁸⁾ 다만 司禮監寫字로부터 提督에 이르기까지의 신분과 各衙門總理, 管理만이 감히 예살을 입을 수 있었다. 관직이 있으면 홍색 예살을 입고 補子를 달았고, 관직이 없으면 청색 예살을 입고 補子를 달지 않았다¹⁹⁾. 재질은 紗, 羅, 紬, 絲 등이 사용되었다²⁰⁾.

그런데 예살의 형제에 대해 王世貞(1526~1590)은 《觚不觚錄》에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袴褶²¹⁾은 戎服으로서 소매가 短袖이거나 無袖이며 의복의 중간이 끊어져 있다. 그 아래에 가로로 주름이 있고 다시 그 아래에 세로로 주름이 있다. 만약 소매가 길면 袂襖이라고 한다”²²⁾고 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가로의 주름은 腰線을 말하는 것이고 세로의 주름은 치마의 주름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王世貞이 제시한 袂襖의 형태는 [圖 3]과

같을 것이다. 즉 前後 衣身이 모두 상하분리식이고 허리에 腰線이 있고 치마에 가늘고 뾰족한 주름이 잡혀 있는 형태로서 전술한 관복으로 착용된 예살과는 다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유물 중에도 이러한 형태의 의복이 있는데 고려시대 송부개의 요선철릭(1350년 전후 추정)²³⁾과 조선전기 변수(1447~1524)의 요선철릭²⁴⁾이 그것이다.



<圖 3> 예살
(服飾篇下, p.344)

중국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의복을 元代에는 腰線, 辮線, 辮線襖, 辮線襖子, 腰線襖子 등이라고 하였는데²⁵⁾ 명대에 예살이라고 하였으니 시대에 따라 그 의복명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元代의 腰線襖子 혹은 辮線襖子와 같은 형태에서 소매를 짧게 하거나 제거한 것을 명대에는 袴褶이라고 했고, 또 袴褶에 소매를 길게 한 것을 예살이라고 하였으니 결국 고슴과 예살은 元代의 腰線襖子 혹은 辮線襖子의 유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예살은 원래 간편한 戎服으로 말을 타거나 여행할 때 착용되었는데²⁶⁾ 明代에는 사대부와 서민 남자들의 燕居服으로 착용되었으며 특히 명대 말기에는 사대부들이 程子衣, 道袍가 간소하다 하여 연회시에 반드시 예살을 입었다²⁷⁾.

이상 살펴본 결과 예살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살은 衣身의 前後 형제에 따라 '뒷길은 상하연결식이고 앞길은 상하분리식인 예살'과 '앞·뒷길이 모두 상하분리식인 예살'로 분류된다. 兩者는 무[襪]의 有·無와 허리 아래의 주름 양식에 의해 서로 구별된다. 즉 前者(이후 '무[襪]

가 있는 예살'이라고 칭한다)는 무[襪]가 있고 주름이 앞길의 양 옆에만 있는데 반해 後者(이후 '무[襪]가 없는 예살'이라고 칭한다)는 무[襪]가 없고 주름 또한 앞길과 뒷길 모두에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이 중 무[襪]가 있는 예살은 우리나라의 직령과 유사한 형태의 의복으로서 의살직령이라고 표기되었다.

한편, 예살과 형제가 같은 것으로 명대에 蟒服이라는 것이 있었다(圖 4). 그 의복명은 몸판에 화려하게 수 놓아져 있는 蟒무늬에 따른 것으로 망복의 두 어깨와 가슴, 등에 걸쳐 표현된 감꼭지형[栉形]의 장식 안에 움직이는 蟒 네 마리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圖 4> 蟒服을 입은 內臣
(中國古代服飾史 p.429)

蟒服은 영락 이후 황제가 宦官에게 내린 常服으로서 《明史·輿服志》에 “永樂(1403~1424) 이후에 황제의 좌우에 있는 宦官은 반드시 蟒服을 입는다. 그 제는 마치 예살과 같고 좌우에 蟒을 수놓고 방울대[鸞帶]를 매었다. 이는 연거시의 의복이다. ...또 膝襪이 있는 것이 있었는데 역시 예살과 같고 위에 蟒補가 있다”²⁸⁾고 되어 있다.

위 문헌에서 蟒服의 제가 예살과 같다고 했으니 蟒服 역시 뒷길은 연결되어 있고 앞길은 상하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²⁹⁾. 蟒服은 貼裏 혹은 飛魚服이라고도 하는 것으로³⁰⁾ 뒷길이 상하연결식이고 앞길이 상하분리식이라는 점과 주름이 앞길의 양 옆에만 있다는 점에서 예살의 형제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무[襪]가 없다는 점에서 예살과

다르다. 즉 兩者는 무[襪]의 有無에 따라 무[襪]가 있으면 예살이고 무[襪]가 없으면 칠릭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칠릭에 무[襪]를 가하면 예살이 되므로 명대의 무[襪]가 있는 예살은 칠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명대에 칠릭은 雜役, 執役 厮卒, 衙門中 執役者 등 노비로서 역에 종사하는 자의 上服으로도 착용되었다.

2. 직신(直身)

직신은 고려시대의 문헌인 《老乞大諺解》에 덕령으로 언해되어 있고,³¹⁾ 같은 책에 直身襖子가 덕녕옷으로 언해되어 있으며,³²⁾ 조선시대의 문헌인 《譯語類解》에도 직령옷으로 언해되어 있다³³⁾. 따라서 중국의 의복인 직신은 우리나라에서 직령으로 표기되어 덕령으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도 직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 왕이 중국 사신에게 내린 하사품이거나 중국에 보낸 물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³⁴⁾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의복인 직신을 중국 사신을 위해 특별히 제작하여 하사하거나 중국에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의 기록들에 근거해서 형태면에서 직신과 직령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며,³⁵⁾ 이러한 견해는 다음의 문헌 기록과 실증적 유물을 통해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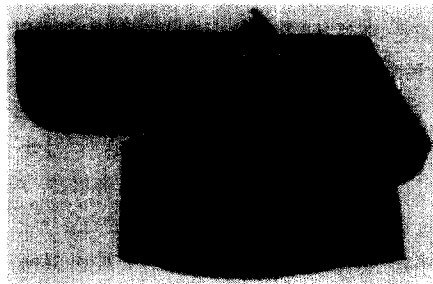
직신의 형태에 대해 明代의 《酌中志》와 《明宮史》에 “제도는 道袍와 같다. 단지 외측에 襪이 있을 뿐이고 등급에 맞는 補를 달았다.”³⁶⁾고 되어 있고, 주석보 역시 직신에 대해 “양쪽 외측에 襪이 있고 ... 혹은 襪이 펼쳐진 것도 있다. 襪衣를 더하고 등급에 맞는 대를 매었다”³⁷⁾고 하였다. 즉 직신은 襪이 있는 형태로서 등급에 맞는 補가 달려있는 의복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의복 중 襪이 있는 것으로는 단령과 직령이 있는데 직신의 제도가 道袍와 같다고 했으니³⁸⁾ 직신은 곧 우리나라의 직령과 관련있는 형태의 의복임을 확인할 수 있다.

[圖 5]는 明代의 유물로서 上海의 松江에서 출토된 紋緞의 大袖袍인데 우리나라 조선전기의 직령(圖 6)³⁹⁾과 유사한 형태이다⁴⁰⁾. 즉 兩者는 직령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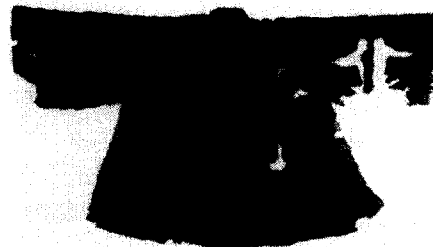
에 무[襪]가 있고 진동부위가 약간 파지면서 소매통이 넓다는 점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圖 7]은 明代 神宗(1572~1620)의 定陵에서 출토된 복식으로 ‘交領袂龍袍’ 또는 ‘交領中單’이라고 이름 붙여진 袍인데 李恩珠는 이를 조선시대의 직령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무가 뒤로 젖혀지는 것으로 우리나라 김위의 직령 2점과 같다고 하였다⁴¹⁾. 따라



<圖 5> 明代의 직신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 p.121)



<圖 6> 조선전기의 직령
(450년만의 외출, p.8)



<圖 7> 明代의 직신
(李恩珠 논문, 1998, p.102)

서 동일한 형태의 의복이 동시대 중국과 조선에서 공통으로 착용되었는데 그 명칭은 중국에서는 직신

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직령으로 구별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圖 8]은 士人이 직신을 입은 모습인데 전술한 [圖 5], [圖 7]과 달리 무[襪]가 길의 안쪽에서 주름으로 처리되어 있다.



<圖 8> 명대의 직신
(中國歷代服飾, p.228)

직신은 明代에 황제와 조정의 관리, 그리고 내신의 관복으로 착용되었다. 색상은 大紅, 天靑, 黑綠, 玄靑 등이 사용되었는데 大紅으로 만든 직신은 황제만이 입을 수 있었고 그 외에는 감히 입을 수 없었다⁴²⁾. 이 외에 직신은 鴨綠紗,⁴³⁾ 흑마포, 다갈주, 초록면주 등으로도 만들어 졌다⁴⁴⁾.

그런데 明代에는 이러한 형태의 직신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직신이 있었다. 明初 태조가 서민의 章服으로 제정한 靑布 직신이 그것인데 衣身이 넓고 길었으며 특히 옷소매가 마치 布袋와 같이 寬大한 형태로서 前述한 관복으로 착용된 직신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직신은 明代에 직철이라고도 불리었는데,⁴⁵⁾ 직철은 이미 宋·元代에 있었던 의복이므로 明代의 직신은 宋·元代에 유행되었던 직철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직철에 대해 宋代의 《圖畫見聞志·論衣冠異制》에 “晉의 처사 馮翼은 布로 만든 큰 소매[大袖]의 옷을 입었는데 둘레에 검은 색으로 緣을 두르고 아래에 난을 가했으며, 앞은 두 개의 長帶로 동였다. 隋·唐대에는 … 馮翼之衣라고 불렀고 … 현재는 直褹이라고 부른다”⁴⁶⁾고 되어 있고, 《雲麓漫鈔

》에 “고대의 中衣는 곧 오늘의 스님이나 행자들의 직철이다. 또한 고대의 큰 소매의 의복이다”⁴⁷⁾고 되어 있으며, 明代의 《俚言解·直褹》에 “衣에 襞積이 없고 그 制가 관할한 것을 직철이라고 한다”⁴⁸⁾고 되어 있다.

위 문헌에 의하면 晉·隋·唐대에 이미 소매가 크고 넓으며 가장자리에 검은색 緣이 둘러져 있는 형태의 의복이 있었는데 宋代에 이르러 이를 직철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즉 직철은 송나라 사람들이 고대에 공자가 입었던 소매가 큰 형태의 의복인 逢掖之衣⁴⁹⁾의 체도를 모방하여 만든 의복으로서,⁵⁰⁾ 고대의 逢掖之衣를 수·당대에는 馮翼之衣라고 했고 송대에는 직철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직철이라는 명칭은 등부 가운데의 재봉선이 곧게 아랫단에 이르는 형태 특징에 따른 것이므로⁵¹⁾ 직철은 전후 衣身이 상하연결식이라는 특징을 지니면서 특히 소매가 관대하고, 衣에 주름[襞積]이 없으면서 관할한 형태의 의복임을 알 수 있다.

직철은 고대에는 집에서 입는 평상복이었고,⁵²⁾ 수·당대에는 朝廷과 在野에서 착용되었고,⁵³⁾ 송·원대에는 퇴직하여 한가한 관리, 隱士, 문인, 유생, 승려, 도인, 평민들에게 착용되었으며,⁵⁴⁾ 명대에도 여전히 유생, 사인, 승려, 평민들에게 착용되었다. 宋·元 시기에는 사대부들이 일부러 옛 것을 모방한 大袖인 직철을 즐겨 착용하였으므로⁵⁵⁾ 직철은 송대 이후에 더욱 유행되었다. 따라서 직철의 모습은 송대, 원대, 명대의 회화자료에서 흔히 보여진다.

[圖 9]는 宋代의 文章家인 蘇軾이 직철을 입은 모습이고, [圖 10]은 元代의 楊竹西가 직철을 입은 모습이며, [圖 11]은 明代의 士人이 직철을 입은 모습이다. 모두 交領右衽이고 가장자리에 검은 색 緣이 둘러져 있고 무[襪]가 없으며, 소매가 매우 크고 넓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직철은 당시 승려와 도사들에게 즐겨 착용됨으로써 道衣, 道服, 道袍, 道士服이라고도 불리었는데⁵⁶⁾ 이 중 道袍라는 명칭은 직철과 같은 개념으로서 전술한 직철의 형태를 참고로 할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편복포로 착용된 도포와 명칭은 같으나 형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회화자료를 보면 전술한 직철과 비슷하지만 단단히 가장자리에 검은색 緣이 없는 형태도 있는



<圖 9> 宋代的 직철
(服飾篇下, p.232)



<圖 10> 元代的 직철
(實用服飾資料, p.158)



<圖 11> 明代的 직철
(中國服裝史, p.291)

데 이러한 형태의 의복이 바로 明初 태조가 서민의 章服으로 정한 직신이라고 생각된다. [圖 12]는 사인이 직신을 입은 모습이고,⁵⁷⁾ [圖 13]은 서민이 직신을 입은 모습이며, [圖 14]는 일반병졸이 직신을 입은 모습이다.

사인이 입은 직신은 소매가 크고 넓고 옷깃이 넓으며 衣身이 寬大하고 길이도 발을 덮을 정도로 긴데 반해 서민과 일반병졸이 입은 직신은 소매가 짧고 좁고 옷깃이 좁으며 衣身이 밀착되고 길이도 무릎을 지나는 정도로 간소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즉 사인은 관대한 형태의 직신을 집에서 또는 사스러운 장소에서 평상복으로 착용하여 한가하고 우아한 기품을 표현하였으며, 서민과 일반병졸은 밀착된 형태의 직신을 일상생활과 服役時에 걸음으로

착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록 명초 태조가 서민의 章服으로 衣身과 소매가 관대한 형태의 직신을 제정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직신은 서민들의 노동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실제 서민들은 활동의 불편함때문에 [圖 13]과 같은 형태의 직신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당시 서민층에서 유행된 민요 중에 ‘...두 가지가 이상하다. 두 옷소매의 모양은 마치 포대와 같다’는 내용에서도 확인된다⁵⁸⁾.

이상 살펴본 결과 직신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황제, 조정관리, 내신의 관복과 사인의 평상복으로 착용되었던 무[襪]가 있는 직신이고 다른 하나는 은사, 문인, 유생, 사인, 서민의 평상복과 일반병졸의 관복으로 착용되었던 무



(東洋의 名畫(3) 中國Ⅱ, p.93)



(實用服飾資料, p.229)



(服飾篇下, p.357)

<圖 12> 士人の 직신 착용모습



(實用服飾資料, p.252)



(中國服裝史, p.298)



(中國服裝史, p.302)



(中國古代服飾史, p.468)

<圖 13> 庶民의 직신 착용모습

<圖 14> 병졸의 직신 착용모습

[襪]가 없는 직신이다. 兩者는 형태면에서 무[襪]가 있고 없음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직령교임이고 前後 衣身의 형제가 상하연결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 중 관복으로 착용된 무[襪]가 있는 직신은 우리나라의 직령과 동일한 형태의 의복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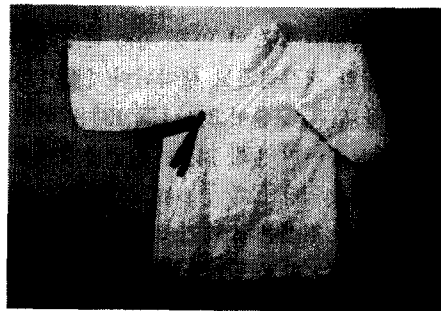
Ⅲ. 형제 비교

우리나라의 직령과 이와 관련있는 중국의 포제를 비교함에 있어서 직령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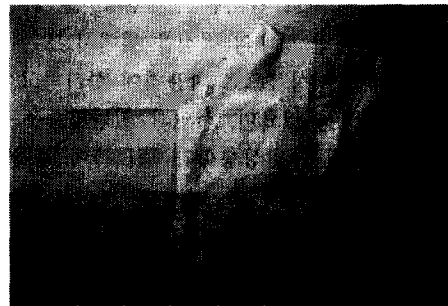
조선전기의 무[襪]가 있는 직령은 무[襪]의 위치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무[襪] 전체가 길 안쪽에서 주름으로 처리된 유형(안주름형)이고,⁵⁹⁾ 다른 하나는 무[襪]의 일부(전체 무나비의 20% 정도)⁶⁰⁾는 길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겨드랑이 위치까지 접혀 들어간 유형(안팎주름형)이며,⁶¹⁾ 나머지는 무[襪] 전체가 길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겨드랑이 위치까지 접혀 들어간 유형(밖주름형)이다⁶²⁾. [圖 15]는 송문창(1554~1594)의 안팎주름형 직령의 복원품이고 [圖 16]은 1600년대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밖주름형 직령의 복원품이다⁶³⁾.

조선전기 직령의 유형분포와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조선전기 직령의 유형별 출현율



<圖 15> 안팎주름형 직령 복원품



<圖 16> 밖주름형 직령 복원품

은 안팎주름형(61.18%)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밖주름형(27.8%), 안주름형(11.1%) 순이다. 특히 1400년대에는 안팎주름형이 많이 나타나고 1500년대에는 안팎주름형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밖주름형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또 안주름형은 출현율도 낮고 뚜렷한 유행시기를 점유하지 못하고 있어 단정짓기가 어렵지만 고려시대의 포제

<표 1> 조선전기 직령의 유형분포와 유형별 출현율

시 기	작 용 지(생물 연대)	유 형	유 형 별 유 물 수(출 현 율·%)			시 기 별 소 계
			안 주 름 형	안 꺾 주 름 형	밖 주 름 형	
1400년대	이계윤(1431~1489)	○	0	7	0	7
	홍계강(1450년대)	○				
	김흠조(1461~1528)	○ 2점				
	이인손(1477~1543)	○				
	고 운(1479~1530)	○				
	정 은(1481~1538)	○				
1500년대	정용두(1508~1572)	○	2	4	5	11
	신언식(1519~1582)	●				
	이옥형(? ~1585)	○				
	정휴복(1529~1609)	① 2점				
	채무역(1537~1594)	●				
	이언웅(중종~선조)	①				
	송문창(1554~1594)	○				
	이웅태(1556~1586)	○				
	홀지령(임란전후 추정)	①				
유 형 별 소 계			2 (11.1)	11 (61.1)	5 (27.8)	18 (총계)

● : 안주름형 ○ : 안꺾주름형 ○ : 밖주름형
 ●, ○ 도형 안의 숫자는 앞길의 왼쪽 무에만 잡은 주름수이다

유물들이 대부분 안주름형인 것으로 보아 직령의 유형 중 가장 빨리 유행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비록 전기에 안주름형, 안꺾주름형, 밖주름형 등 세 가지 유형이 모두 통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행별 유행시기는 안주름형, 안꺾주름형, 밖주름형 순이라고 생각된다.

직령의 부위별 형태 중 시기 변화에 따라 변화가 초래되는 주요 부위는 무[襠]와 소매의 모양이므로 직령의 유형별 대표적인 무[襠]와 소매의 모양을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를 참고로 하여 직령과 예살, 직신과의 형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1. 직령과 예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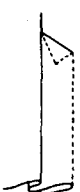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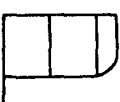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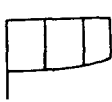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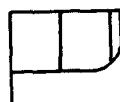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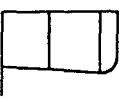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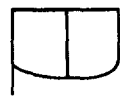
이상에서 예살의 유형은 무[襠]가 있는 예살과 무[襠]가 없는 예살로 분류되고 이 중 무[襠]가 있는 예살이 형태면에서 직령과 관련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襠]가 있는 직령과 예살의 형제를 비교하

면 [표 3]과 같다.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무[襠]가 있는 예살은 의신의 전후형제를 제외하고는 밖주름형의 직령과 거의 동일한 의복임을 알 수 있다. 즉 의신의 전후형제에 있어서 직령은 앞·뒷길이 모두 상하연결식인데 반해 무[襠]가 있는 예살은 뒷길은 상하연결식이고 앞길은 상하분리식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 兩者는 깃양식이 직령교임이고 무[襠]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그런데 무[襠]가 있는 예살은 앞길 치마부분의 양 옆에 주름이 잡혀있는데 이 주름은 안꺾주름형 직령에서 무[襠]의 일부가 길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주름의 모양과 비슷하다.

소매모양에 있어서 무[襠]가 있는 예살은 착수형과 콩각지형이 모두 있고 이 중 착수형이 콩각지형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데, 직령 또한 세 유형 모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예살의 경우 명나라 憲宗(1465~1487)을 모시고 있는 侍者가 입은 예살

<표 2> 조선전기 직령의 유형별 무[襪]와 소매의 모양

고찰항목		유형	안주름형	안짜주름형	밖주름형
무[襪]의 모양					
소매의 모양	착수형				
	콩각지형*				
			채무역(1537~1594)	이계윤(1431~1489)	정휴복(1529~1604)
			신언식(1519~1582)	홍계강(1450년대 추정)	정휴복(1529~1604)

* 소매배래가 진동점 아래로 완만하게 곡선져 내려간 소매는 그 모양이 콩각지와 유사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콩각지형 소매'라고 칭하고자 한다. 콩각지는 풍을 떨어낸 빈 겹데기를 말하는 것으로 콩각지라고도 한다(조선어대사전(하), p.2353 ; 17세기국어사전(하), p.2624 ; 연세한국어사전, p.1876 참조).

<표 3> 무[襪]가 있는 직령과 예살의 형제 비교

고찰항목		의복명	직령	예 살
형태	衣身형제	전	상하연결식	상하분리식
		후	상하연결식	상하연결식
	깃양식	직령교입	직령교입	
	소매모양	착수형, 콩각지형	착수형, 콩각지형	
착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喪服(왕, 왕세자, 문무관리, 궁중하급관리) · 冠服(문무관리, 하급관리, 서인공상천예) · 平常服(왕, 왕세자, 사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冠服(환관, 사려감사자에서 제독에 이르는 신분, 각아문총리와 관리) · 朝服(문무관리)
색상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麻布(黑) · 苧布(黑, 白) · 綿布(鴉青, 上紅, 黃丹, 白) · 紬(草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紗羅紬絲(紅, 靑)

(圖 1)은 착수형이고 北平南苑葦子坑에서 출토된 正德 10년(1515)의 예살(圖 2)은 콩각지형으로 1500년대 전반경에 콩각지형이 나타난다. 그런데 직령의 경우 콩각지형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유물은 안주름형에서는 신언식(1519~1582)의 직령, 안짜주름형에서는 홍계강(1450년대 추정)의 직령, 밖주름형에서는 정휴복(1529~1604)의 직령이다([표 2] 참조). 특히 정휴복의 직령 두 점의 소매모양은 하나는 착수형이

고 다른 하나는 콩각지형으로서 동시대에 두 모양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 직령 역시 1500년대 전반경에 콩각지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매 모양이 착수형에서 콩각지형으로 변화되는 시점은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1500년대 전반경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그런데 같은 콩각지형 소매라 하더라도 직령과 예살은 형태면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직령은

진동이 파지지 않으며 소매통이 진동선을 약간 넘는 형태로서 배래선이 완만한데 반해 예살은 진동이 파지면서 배래가 드리워지고 수구가 좁은 형태로서 배래선이 매우 곡선적이고 유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살의 소매는 당시 중국에서 그 모양이 琵琶와 같다 하여 琵琶袖⁶⁴⁾로 통용되었는데, 비파소매는 예살 뿐만 아니라 다른 의복에서도 흔히 보여지므로 明代 복식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착용용도면에서 兩者 모두 주로 문·무신과 하급 관리의 관복으로 착용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다만 무[襪]가 있는 예살은 문·무관에게 공통으로 착용되었으나 직령은 임란전에는 주로 문관에게 착용되었고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전반 경에는 무관에게 널리 착용되어 차이를 보인다⁶⁵⁾. 선조 7년(1574)에 질정관 조헌이 중국의 문·무관과 내관들이 입은 曳撒를 보고 衣撒直領이라고 표현하면서 본받을 만하다고 아뢰었으나 현존하는 조선시대 유물 중에는 아직 이러한 형태의 의복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직령은 喪服으로도 착용되었다. 보통 백관의 경우 관복으로 입던 의복을 喪服으로 대응하기도 했으므로 무[襪]가 있는 예살 또한 관복 겸 喪服으로 착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령은 평상복으로도 착용되었는데 예살의 경우 무[襪]가 있는 예살은 주로 관복으로 착용되었고 예살의 또 다른 유형인 무[襪]가 없는 예살이 평상복으로 착용되었다.

색상과 재질면에서 직령은 관복으로 착용된 경우 흑마포, 흑·백저포, 아청·백면포 등이 사용되었고 평상복으로 착용된 경우 아청면포, 황단면주, 초록주, 모단 등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직령에는 저포, 마포, 면포, 면주, 주, 모단 등 다양한 재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襪]가 있는 예살의 경우 紗, 羅, 紬, 絲 등 고급견직물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문·무관리, 내관 등의 상류층에 한한 것이고 사레감사자에서 제독에 이르기까지의 신분과 각아문총리·관리 등 낮은 신분층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포, 저포, 면포 등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살의 유형 중 무[襪]가 없는 예살은 직령교임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직령과 전혀 다른 형태의

의복이다. 이는 고려시대 송부개의 요선철릭과 거의 동일한 형태인데 다만 치마의 구성법이 약간 다르며, 조선전기 변수(1447~1524)의 요선철릭 3점과는 동일한 형태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요선철릭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요선철릭은 우리나라 왕이 중국 사신과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謝恩使에게 내린 하사품으로 되어 있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통용된 의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⁶⁶⁾. 따라서 동일한 형태의 의복을 당시 중국에서는 예살이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요선철릭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2. 직령과 직신

이상에서 직신의 유형은 무[襪]가 있는 직신과 무[襪]가 없는 직신으로 분류되고, 이 중 무[襪]가 있는 직신은 우리나라의 무[襪]가 있는 직령과 동일한 형태의 의복임을 알 수 있었다. 무[襪]가 있는 직령과 직신의 형제를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직령과 직신은 무[襪]양식에 있어서 兩者 모두 안주름형과 밖주름형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圖 5], [圖 8], [표 1] 참조).

먼저 밖주름형의 직신과 직령은 兩者 모두 의신의 전후형제가 상하연결식이고 직령교임에 무[襪]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형태의 의복이라고 생각된다. 즉 동일한 형태의 의복이 동시대 중국과 조선에서 공통으로 착용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직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직령으로 불리었던 것이다.

소매모양에 있어서 上海의 松江에서 출토된 직신([圖 5])과 정휴복(1529~1604)의 직령([표 2])이 모두 공각지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다만 上海의 松江에서 출토된 직신([圖 5])의 소매가 훨씬 곡선적이다. 즉 진동에서 수구까지의 선의 흐름이 누운 S자 형태로서 이는 비파소매가 한층 과감하게 전개된 것인데 이처럼 유동적인 곡선의 배래선은 직령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착용용도면에서 직신과 직령은 모두 왕 이하 문무관리의 관복으로 착용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그런데 직신과 직령은 서인에게도 착용되었는데 직신의 경우에서 보면 서인에게 착용된 직신은

<표 4> 무[襪]가 있는 직령과 직신의 형제 비교

의복명		직령	직신
고찰항목			
형태	衣身 전후형제	상하연결식	상하연결식
	깃양식	직령교입	직령교입
	소매모양	착수형, 콩각지형	콩각지형, 광수형
착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喪服(왕, 왕세자, 문무관리, 궁중하급관리) · 冠服(문무관리, 하급관리, 서인공상친예) · 平常服(왕, 왕세자, 사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冠服(황제, 조정관리, 환관) · 평상복(사대부) 	
색상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麻布(黑) · 綿布(鴉青, 土紅, 黃丹, 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梲蒲(黑, 白) · 紬(草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麻布(黑) · 綿紬(草綠) · 紬(茶褐) · (大紅, 天青, 玄青, 黑綠) · 紗(鵝綠)

무[襪]가 없는 양식이다. 당시 우리나라 유물 중 깃이 직령교입이고 삼각형 무[襪]가 달려 있으며 아랫자락이 두루막힌 형태의 의복이 있는데⁶⁷⁾ 이는 무[襪]가 없는 직신과 유사하다. 무[襪]가 없는 직령과 직신의 형제비교는 다음에 논하고자 한다.

직신과 직령은 모두 예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의 正服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인다. 즉 직신은 少者나 幼子가 尊者나 長者를 뵈 때는 착용될 수 없었다⁶⁸⁾. 직령 역시《조선왕조실록》 중 태종 2년(1402)과 중종 23년(1528)의 기록에 의하면 직령차림으로 신하가 임금의 명을 받거나⁶⁹⁾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배알하는 것은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간주되었고,⁷⁰⁾ 《呂氏鄉約諺解(1518)》⁷¹⁾에도 소자나 유자가 존자나 장자를 예로써 뵈 때 직령이 착용될 수 없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이(1536~1584)의 《栗谷集》⁷²⁾과 유형원(1622~1673)의《磻溪隨錄》⁷³⁾에는 소자나 유자가 존자나 장자를 뵈 때 禮見과 燕見에 모두 직령이 착용되었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령과 직신은 조선전기에는 예견에 착용될 수 없었으나 1500년대 후반부터는 예견과 연견에 보편적으로 착용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용된 색상과 재질면에서도 직신과 직령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관복으로 착용된 경우 직신의 재질은 주로 麻布와 綿紬였고 색상은 마포인 경우 黑色이 주류를 이루고 綿紬인 경우 茶褐色과 草綠色이 사용되었으며, 직령의 재질은 주로 細苧布, 細麻布, 麻布, 綿布(木棉) 등이고 색상은 苧布와 麻布

인 경우에는 黑色이 주류를 이루고 木棉인 경우에는 鴉青色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⁷⁴⁾. 이 중 黑麻布는 직신과 직령에 공통으로 사용된 소재이다. 평상복으로 착용된 경우에는 주, 면주, 모단 등 고급견직물이 사용되었다.

특히 사용된 색상에 있어서 관직이 있는 사람의 관복 혹은 평상복에는 직신의 경우 대홍색, 현청색, 천청색, 초록색 등이 사용되었고 직령의 경우에도 홍색, 아청색, 초록색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직신과 직령에는 홍색계, 청색계, 녹색계가 공통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홍색계의 사용을 보면 대홍색 직신은 황제만이 입을 수 있었고, 직령의 홍색 역시 토홍색으로 이는 조선전기 사대부 복색의 上色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홍색계가 동시대 중국과 조선에서 上色으로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안주름형 직신(圖 8) 역시 안주름형 직령(표 2)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의복임을 알 수 있다. 소매모양에 있어서 직신의 경우 소매가 길고 넓은 형태인데 이는 명대 士인들이 입었던 의복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선전기의 안주름형 직령에는 착수형과 콩각지형이 있으며(표 2), 1640년대의 제주고씨의 안주름형 직령⁷⁵⁾ 역시 착수형인 것으로 보아 안주름형 직령에는 착수형과 콩각지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언

명칭면에서 직령과 관련있는 중국의 포제에는 예

살과 직신이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중국의 예살과 직신의 형제를 고찰한 다음 이를 우리나라의 무[襪]가 있는 직령과 비교·고찰한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의복인 曳撒은 우리나라에서 衣撒 혹은 衣撒直領으로 표기되어 이삭덕녕, 이삭옷 등으로 불리었으며, 直身은 우리나라에서 直領으로 표기되어 덕령으로 불리었다.

2. 예살의 유형은 衣身の 前後 형제에 따라 '뒷길은 상하연결식이고 앞길은 상하분리식인 예살'과 '앞·뒷길이 모두 상하분리식인 예살'로 분류된다. 兩者는 무[襪]의 有·無와 주름의 위치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데, 前者는 양 옆에 무[襪]가 있고 주름이 앞길의 치마부분의 양 옆에만 있는데 반해 後者는 양 옆에 무[襪]가 없고 주름 또한 앞·뒷길 모두에 있다. 이 중 前者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의살 직령으로 표기된 예살이고, 후자는 요선철릭이라고 표기된 예살이다.

3. 직신의 유형은 무[襪]가 있는 직신과 무[襪]가 없는 직신으로 분류된다. 兩者는 무[襪]가 있고 없음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직령교임이고 衣身の 前後 형제가 상하연결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무[襪]가 있는 직신의 무[襪] 처리방법에는 안주름형과 바주름형 등이 있다. 무[襪]가 없는 직신의 경우 소매가 길고 넓고 옷깃이 넓으며 衣身이 관활하고 긴 형태는 士人의 평상복으로 착용되었고, 소매가 짧고 좁고 옷깃이 좁으며 衣身이 밀착되고 길어도 무릎을 지나는 정도로 간소한 형태는 서민의 평상복과 일반병졸의 관복으로 착용되었다.

4. 무[襪]가 있는 예살과 직령은 전체적인 외관이 거의 동일한 의복이다. 다만 衣身の 前後 형제에 있어서 직령은 앞·뒷길이 모두 상하연결식인데 반해 무[襪]가 있는 예살은 뒷길은 상하연결식이고 앞길은 상하분리식이라는 점과 소매모양에 있어서 예살의 배래선이 훨씬 곡선적이고 유연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착용용도면에서 무[襪]가 있는 예살과 직령은 모두 문무관리와 하급관리의 관복으로 착용되었으며, 직령의 경우 黑·白苧布, 黑麻布, 鴉青·白綿布, 絹織物 등 다양한 재질이 사용되었으나 예살의 경우 주로 紗, 羅, 紬, 絲 등 고급견직물이

사용되어 차이를 보인다. 무[襪]가 없는 예살은 직령교임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직령과 전혀 다른 형태의 의복으로서 주로 평상복으로 착용되었다.

5. 무[襪]가 있는 직신과 직령은 동일한 형태의 의복이다. 다만 소매모양에 있어서 전술한 예살과 마찬가지로 직신의 배래선이 훨씬 곡선적이고 유연한데 이는 明代 복식의 특징으로 이해된다. 직신과 직령로 왕 이하 문무관리의 관복과 사대부의 평상복으로 착용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며, 兩者 모두 예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의 正服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인다. 관복으로 착용된 경우 직신의 경우 大紅, 天靑, 玄靑, 黑綠의 견직물과 黑麻布, 茶褐紬, 草綠綿紬 등이 사용되었고, 직령의 경우 黑細苧布, 黑麻布, 鴉青綿布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 黑麻布는 공통으로 사용된 재질이다. 색상면에서 직신과 직령에는 모두 홍색계, 청색계, 녹색계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紅色은 당시 중국과 조선에서 모두 上色으로 선호되었다.

참고문헌 및 미주

- 家禮附贅
- 觚不觚錄
- 老乞大·朴通事諺解
- 圖書見聞志
- 俚言解
- 明宮史
- 明武宗外記
- 明史·輿服志
- 磻溪隨錄
- 方言類釋
- 呂氏鄉約諺解
- 譯語類解
- 雲麓漫鈔
- 酌中志
- 朝鮮常識
- 朝鮮王朝實錄
- 權瑛淑·李珠英·張賢珠,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服飾과 高麗後期 衣服의 特性", 성보학술총서1, 1997.
- 金美子, "直領에 관한 연구", <服飾>제5호, 1981.
-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劉淑津, "明代服飾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

- 위논문, 1989.
- 李恩珠,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李珠英·權瑛淑, “조선시대 직령(直領)제도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服飾文化研究, 제8권 제2호, 2000.
 - 국립민속박물관편,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원주 번씨 출토유물 기증전-》, 2000, pp.32~35.
 - 石宙普紀念民俗博物館 編, 《韓國服飾》제7호, 1989.
 - _____, 《韓國服飾》제9호, 1991.
 - _____, 《韓國服飾》제11호, 1993.
 - _____, 《韓國服飾》제16호, 1998.
 - _____, 《韓國服飾》제17호, 1999.
 - 榮州市 編,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1998.
 - 忠北大學校博物館 編, 調査報告 제8책, 《壬亂前後 出土服飾 및 喪禮》, 1983.
 - 大阪外國語大學 朝鮮語研究室, 《朝鮮語大辭典(上), (下)》, 民族文化, 1986.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상)》, 대제각, 1991.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1)》, 여강출판사, 1992.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 한국어사전》, (주)두산, 199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7세기국어사전(상), (하)》, 태학사, 1995.
 -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1),(4)》, (주)어문각, 1992.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臺北: 丹青, 1986.
 - 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服飾編下》, 臺北: 裕台公社, 中華民國七十五年, 1986.
 - 黃能馥·陳娟娟, 《中國服裝史》, 北京: 中國旅遊出版社, 1995.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商務印書館, 1992.
 - 周汛·高春明, 《中國古代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6.
 - 黃輝, 《中國古代人物服式與畫法》,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87.
- 1) 劉熙, 《釋名》 卷第5, 釋衣服 第16 「直領領邪直而交下 亦如丈夫服袍方也 交領就形名之也」
 - 2) 鄭東愈, 《畫永編》: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篇 「...直領의 制가 領 외에는 대체로 團領에 合하고, 특히 特色있는 『무』의 制에서 兩者가 아주 如一함은 畫永編에 논함과 같지만...」
 - 3)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유물로서 이를 권영숙·이주영·장현주는 ‘도포형 직령’으로 명명하였다(權瑛淑·李珠英·張賢珠,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腹藏服飾과 高麗後期 衣服의 特性”, 성보학술총서1, 1997 참조).
 - 4) 계주고씨(1560~1630 추정: 1점), 전박장군(1592 추정: 1점), 김덕령(1567~1598: 4점), 정양우·정태제(1574~1647·1612~1669: 2점), 남양홍씨(1583~1654: 1점), 홍희준(1761~1841: 2점)의 유물에서 볼 수 있다.
 - 5) 李珠英·權瑛淑, “조선시대 직령(直領)제도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服飾文化研究, 제8권 제2호, 2000.
 - 6) 《辭源》 4, p.2819 : 《漢語大辭典》 9, p.48 : 《中文大辭典》 8, p.627.
 - 7) 《老乞大》, p.40.
 - 8) 《老乞大諺解》 下, p.45.
 - 9) 曳撒는 裋褌, 裋褌이라고도 한다. 중국식 발음을 비교하면 曳와 裋는 yè이고 褌는 yī로서 모두 衣자의 yī, yi와 유사하다.
 - 10) 《老乞大諺解》 下, p.45 「春間好青羅衣撒」: 《朴通事諺解》 中, p.51 「將我木棉衣撒來穿」
 - 11) 《譯語類解》 上, 服飾, p.44 「衣撒 이삭옷」
 - 12) 《선조수정실록》 권8 선조 7년(1574) 11월 1일(甲戌) 「...穿衣撒直領今雖文武同制而其整齊端嚴之象宜若可倣也」
 - 13) 柳馨遠, 《磻溪隨錄》 권25 續編(上) 「...穿衣撒直領(其制前如貼裡後如直領左右兩旁各有裝積) 今雖文武同制 而整齊端嚴」
 - 14) ① 呂愷, 《明宮史》 卷3 內臣服佩 「裋褌 其製後襟不斷 而兩傍有襪 前襟兩裁 而下有馬面褶 兩傍有耳」 ② 劉若愚, 《酌中志》 卷19 內臣佩服紀略 「裋褌 其製後襟不斷 而兩傍有襪 前襟兩裁 而下有馬面折 從兩傍起」
 - 15) 襪는 擺라고도 하며, 원래 치마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즉 《方言 四》에 “襪는 裙이다. 陳魏의 사이에서는 較라고 말한다. 關에서 東으로 가면서 襪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急救篇 二》 注에 “裙은 곧 裳이다. 일명 較라고도 하고 襪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어 陳魏시대에 있어서 襪는 裙과 같은 개념으로 치마를 지칭하는 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宋代의 《集韻》에 “襪는 衤를 때 마치 擺와 같다. 오늘날 腋下에 裝積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내용이 《正字統》에 “襪는 오늘날 의복의 腋下의 幅에 裝積이 있는 것을 모두 襪라고 한다. 衤를 때 衤이 擺와 같다”고 되어 있어 宋代에 이르러 襪의 의미가 의복의 특정 부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서 腋下의 幅은 곧 衤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宋代에 이르러 襪는 벽적무, 즉 주름이 있는 衤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金代의 《金史》에 “盤領衣의 縫掖 아래에 裝積이 있어서 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봉掖 아래’의 벽적’은 곧 襪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襪는 陳魏시대에는 裙의 개념이었으나 宋代에는 벽

- 적무, 즉 주름이 있는 옆무의 개념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6) 安珮, 《家禮附贅》「別製直領衣服之但腋下止有一耳」
- 17) '무'라는 용어는 《譯語類解》(1690)와 《方言類釋》(1778)에 漢語인 '杈兒'를 國文으로 '무'라고 표기한데서 볼 수 있다. 杈兒가 나무의 갈라져 나간 가지라는 뜻이므로 무는 脇布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무의 사전적 의미는 '두루마기와 같은 옷옷의 좌우 겨드랑이 아래에 댄 단 폭', 즉 두루마기 등의 양 옆선에 댄 삼각형의 자락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또한 무는 《畫永編》(1805~1806)과 《朝鮮常識》(1948)의 기록에 의하면 圓領이나 直領의 양 옆선에 달려있는 사각형의 자락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결국 두루마기의 삼각형 옆자락과 단령이나 직령의 사각형 옆자락을 모두 '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를 보면 단령이나 직령의 옆자락이 '襠'라고 표현되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직령의 옆자락에 대해 무와 함께 襠라는 용어도 사용하고자 하나 襠가 아직 학계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편의상 '무[襠]'라고 표현하고자 한다(《譯語類解》下, 裁縫, p.6 : 《方言類釋》 권2, 裁縫類, p.24 : 《朝鮮常識》 風俗篇, p.124 : 《漢語大詞典》 4, p.792 : 《朝鮮語辭典》, p.220 : 조선말대사전(1), p.1145 : 17세기국어사전(상), p.1094 : 조선어대사전(상), p.898 : 현대조선말사전(상), p.973 : 우리말큰사전(1), p.1455 참조).
- 18) 《明武宗外記》「正德十三年正月…今京朝官各朝服迎候 而傳旨用曳撒…文武群臣皆曳撒」
《漢語大辭典》9, p.48 「襠撒亦作 襠襪 明代宮廷內臣穿的一種常服 也稱曳撒」
- 19) 劉若愚, 앞책 : 周錫保, 앞책, p.401 : 周汎·高春明, 앞책, p.205.
- 20) 周汎·高春明, 앞책, p.205.
- 21) 袴褶은 그 명칭이 漢代부터 있었다. 위는 褶이 생기게 하고 아래는 袴를 동여매었기 때문에 袴褶이라고 했다. 이러한 형태의 袴褶은 漢代 이후 南北朝時代에 성행되다가 唐代 말기에 점차 폐하게 되고 宋代에는 의식이나 시위 때에만 착용되었다. 明代의 袴褶은 비록 그 명칭은 옛이름을 따랐지만 전통적인 袴褶의 형태와는 구별된다. 즉 袴褶은 上下分離式으로 明代에 새로 만들어진 양식의 의복으로서 사대부와 서민 남자들의 燕居時 복장이었다(周汎·高春明, 《中國衣冠服飾大辭典》, p.206 : 《辭原》, p.2822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436 참조)
- 22) 王世貞, 《觚不觚錄》「褲褶 戎服也 其短袖或無袖 而衣中斷 其上有橫折而下復豎折者 若袖長則爲曳撒」
- 23) 權瑛淑·李珠英·張賢珠, 앞논문, p.120.
- 24) 국립민속박물관편,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원주번씨 출토유물 기증전-》, 2000, pp.32~35.
- 25) 權瑛淑·李珠英·張賢珠, 앞논문, p.142.
- 26) 劉淑津, “明代服飾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32.
- 27) 王世貞, 《觚不觚錄》「…邇年以來 忽謂程子衣道袍皆過簡 而士大夫宴會必衣曳撒」
- 28) 《明史·輿服志三》「永樂以後 宦官在帝左右 必蟒服制如曳撒 綉蟒干左右 系以鸞帶 比燕閑之服也 … 又有膝襠者 亦如曳撒 上有蟒補…」
- 29) 周汎·高春明, 앞책, p.203.
- 30) 동일 그림에 대해 周錫保, 黃能馥, 陳娟娟은 貼裏라고 했고, 박성실은 飛魚服이라고 했다.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429 : 黃能馥·陳娟娟, 《中國服裝史》, p.295 :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p.116 참조)
- 31) 《老乞大諺解》 下, p.46.
- 32) 앞책, p.26.
- 33) 《譯語類解》 上, 服飾, p.44.
- 34) 세조 14년(1468)에 중국사신(강옥, 김보)에게 黑麻布直身을 하사했고, 성종 1년(1469)에 중국 사신에게 黑麻布直身을 하사했고, 성종 9년(1477)에 조선사신이 중국에서 茶褐紬直身을 도둑맞았고, 성종 10년(1478)에 김비의(표류인)에게 直身을 하사했고, 성종 11년(1479)에 別進獻의 품목으로 草綠綿紬袂直身과 黑麻布直身을 북경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 35) 權瑛淑·李珠英·張賢珠, 앞논문, p.141 : 李恩珠(1997), 앞논문, p.38.
- 36) 《酌中志》 권19 「直身 制與道袍相同 惟有襠在外 綴本等補」
《明宮史》 권3 內臣服佩8 「直身 制與道袍相同 惟有襠在外 綴本等補」
- 37) 周錫保, 앞책, 「直身 在外兩傍有襠 綴本等補子 或亦有開襠 加襠衣而束本等帶者」
- 38) 《酌中志》와 《明宮史》에서 직신이 도포와 같다고 한 것은 의복 구성면에서 다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의복양식은 크게 上下分離式과 上下連結式으로 분류된다. 상하분리식에는 심의, 칠리, 대습, 순습, 예살, 정자의 등이 포함되고 상하연결식에는 도포, 직철, 직신, 난삼 등이 포함된다. 이와같이 전후 衣身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兩者는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복의 깃양식은 크게 圓領(盤領), 交領(斜領), 直領(對襟)으로 분류된다. 도포와 직신은 모두 교령이라는 점에서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39) 이응태(1556~1586)의 직령이다.
- 40) 高福男,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 集文堂, 1987, p.120.
- 41) 李恩珠, 앞논문, pp.102~103.
- 42) 《酌中志》 권19 「聖上有大紅直身袍 凡印公公若過司

- 房 或乘筆私自下直房 始穿此…其色止有天青黑綠玄青不敢大紅者」
- 43) <老乞大諺解> 下, p.218.
- 44) 각주 34) 참조.
- 45) 周錫保, 앞책, p.402; 黃能馥, 陳娟娟, 앞책, p.294; 中華五千年文物集刊, 앞책, p.288, 357, 429.
- 46) 郭若虛, <圖畫見聞志·論衣冠異制> 「晉處士馮翼 布衣大袖 周緣以皂 下加襪 前系二長帶 隋唐…謂之馮翼之衣 今呼爲直襪」
- 47) 趙彥衛, <雲麓漫鈔> 卷4 「古之中衣 即今僧寺行者直掇 亦古逢掖之衣」
- 48) 陳士元, <俚言解·直襪> 「衣無襪積 其制無襪 謂之直襪」
- 49) 逢은 大인테 大掖은 大袂이므로 逢掖之衣는 소매가 큰 형태의 의복을 말하는 것이다. 또 逢은 馮자로 쓰는데 곧 大이고 掖은 곧 翼으로 소매이므로 결국 逢掖之衣와 馮翼之衣는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禮記·유행편>注: <雅言覺非> 권2: <服飾篇下>, p.429; 李恩珠, 앞논문, p.38 참조)
- 50)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p.251, 334; 中華五千年文物集刊, 앞책, p.285, 429.
- 51) 周錫保, 앞책, pp.277~278; 黃能馥·陳娟娟, 앞책, p.202; 周汎·高春明, 앞책, p.158.
- 52) <辭原> 권3, p.2200.
- 53) 郭若虛, 앞책.
- 54) 中華五千年文物集刊, 앞책, p.429.
- 55) 沈從文, 앞책, p.301.
- 56) 周錫保, 앞책, pp.277~278; 周汎·高春明, 앞책, p.159.
- 57) <玩古圖> 중 골동품을 감상하고 있는 두 선비와 張卿子, 顧夢游가 직신을 입고 있다.
- 58) 周汎·高春明, 앞책, p.158; 黃能馥·陳娟娟, 앞책, p.294.
- 59) 신언식의 직령(韓國服飾 제17호, 1999, p. 66), 채무역의 직령(忠北大學校博物館 調查報告 제8책, 1983, p.47) 등이 있다.
- 60) 전체 무나비의 20% 정도가 길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 이 치수는 무[擺]의 전체 나비에 대한 길 안쪽으로 들어간 치수의 비율이다(김홍조, 이인손, 고운, 송문창의 직령 참조)
- 61) 이계윤의 직령(韓國服飾 제11호, 1993, p.81), 홍계강의 직령(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1992, p.278), 김홍조의 직령(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1998, p.250), 이인손의 직령(全義李氏 花樹會 소장), 고운의 직령(霞川 高雲 출토유물, 2000, p.88), 정은의 직령(韓國服飾 제16호, 1998, p.69), 정응두의 직령(韓國服飾 제9호, 1991, p.146), 이옥형의 직령(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1992, p.244), 송문창의 직령(부산대학교 소장), 이응태의 직령(李恩珠,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1998, p.171) 등이 있다.
- 62) 이언웅의 직령(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1992, p.278), 정휴복의 직령(韓國服飾 제7호, 1989, p.136, 141), 이응태의 직령(李恩珠,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1998, p.100), 홀지령(광주민속 박물관 소장) 등이 있다.
- 63) 본 직령 복원품 2점은 권영숙 교수가 고증하고 권영숙, 이주영, 백영미가 제작하였다.
- 64) 朴京子 譯, 中國服飾5000年(下), 1992, p.363.
- 65) 李珠英·權瑛淑, 앞논문, p.247.
- 66) 權瑛淑·李珠英·張賢珠, 앞논문, pp.144~145.
- 67) 각주 4) 참조
- 68) 周汎·高春明, 앞책, p.158.
- 69) <대종실록> 권3 태종 2년(1402) 2월 19일(壬午)
- 70) <중종실록> 권60 중종 23년(1528) 1월 18일(辛卯)
- 71) 金安國, <呂氏鄉約諺解> 朱子增損呂氏鄉約 禮俗相交 「曰凡少者幼者於尊者長者…禮見…有官…紗帽團領…無官者笠團領…唯四孟通用…有官者紗帽團領…無官者笠團領…燕見…團領直領…門狀…直領團領…」
- 72) 李珣, <栗谷集> 雜著 海州鄉約 「…其一曰幼者於尊者…禮見…團領…燕見…單袷絮直領…少者於長者…禮見…團領或紅直領…若燕見則惟所服 但不可以私服見 私服謂非直領也…」
- 73) 柳馨遠,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禮俗相交 「曰凡少者幼者於尊者長者…禮見…有官者紗帽團領無官者團領或深衣直領…燕見…深衣團領直領道袍皆可通著…」
- 74) 李珠英·權瑛淑, 앞논문, pp.257~258.
- 75)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編, <韓國服飾> 제15호, 1997, p.92.